

춘천~속초·원주~여주 철도사업 '불씨'

내년 예산 각각 50억·15억 국토해양위 소위 통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내년 예산이 8일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이날 정부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내년 예산 50억원을 비롯해 여주~원주 복선전철 예산 15억원을 상임위에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와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무산위기에 처한 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국도 38호선은 600억원 증액한 1,

500억원, 삼척~고성 간 동해고속도로는 239억원을 증액한 1,000억원을 확보했다. 또 국도 확·포장사업(국도 5. 6. 7. 31. 42호선)은 335억원 증액한 740억원,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예산은 577억원 증액한 2,000억원, 국지도 70호선(신매~오월 간)은 80억원 증액한 250억원, 국도 7호선(동해~옥계 간)은 10억원 증액한 1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총 5,935억원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신규 반영된 예산은 망상빌링휴양타운 조성 7억원, 초곡 용골춣대바위 해안녹색경관

길 조성 25억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63억원, 삼척항 매립지 해양 친수공간 조성 80억원 등이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원주) 의원도 이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예산 106억원을 비롯해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예산을 30억원 증액해 80억3,0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지역특화산업 예산도 745억원 증액한 3,000억원을 확정했다. 폐광지역관광자원화사업 예산 반영 여부는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결정한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

/ 제7회 동곡상 시상식 /

2대에 걸친 향토 사랑의 결정체

동곡상 의미

동곡상(東谷賞)은 1975년 강원일보 사장을 역임한 동곡 김진만 전 국회의부장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숨은 인재를 찾아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침체된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제정했다.

강원도 사람들을 '감자바위'나 '암하노불(巖下老佛·바위 밑의 오래된 불상)'로 부르는 풍토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동곡 선생은 이미 37년전에 동곡상 제정으로 몸소 실천한 것이다.

동곡상은 서울대 사회과학장이었던 조순 전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순 강원대명예교수, 김일평 미코네티티대 명예교수, 김득래 전 도농업기술원장, 윤길중 현대시멘트 탁구단 감독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재들을 선정, 시상하면서 강원도의 새로운 향토 인재상을 정립했다는 호평과 함께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향토인재 발굴의 산실로 칭송받던 동곡상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1979년 7명의 수상자를 선정한 것을 마지막으로 신규부에 의해 중단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동곡 선생의 아들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노력으로 32년 만



◇8일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열린 제7회 동곡상 시상식에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향토 강원도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에 빛을 보게 됐다. 김 회장은 24세의 젊은 나이에 미용건설을 창업하고 기업가의 길을 걸으며 동부그룹을 일궈낸 성공한 경영인으로서 관심과 시선을 고향인 강원도로 돌려 도내에서 8,000여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은 향토기업인이다.

특히 김 회장은 동곡 선생이 설립한 '동곡문화재단'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198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도내 지역 16개 회사의 주식 전액을 출연, 총자산 1,000억원 규모의 도내 최대 사회복지재단인 동곡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지난

해 32년 만에 동곡상을 부활한 데 이어 8일 성대하게 '제7회 동곡상 시상식'을 갖게 됐다.

이처럼 동곡상은 동곡 김진만 선생에서 김준기 회장으로 이어지는 2대에 걸친 향토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인 동곡 선생은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언론인이자 정치인으로, 아들인 김 회장은 국내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서로 걸었던 길은 달랐지만 강원도의 발전을 염원하며 기울인 많은 노력은 '부친 자전'이었다.

동곡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을 앞두고 변화와 성장의 모멘텀을 맞고 있는 강원도의 발전에 있어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민이 주체가 돼 '강원도 정신'을 스스로 고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중앙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원도 스스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향토인재들을 찾아 내고 격려하는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적 자산을 축적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기기자 sgtoh@kwnews.co.kr

축하해 주신 분들

△이명박 대통령 △강창희 국회의장 △목요상 대한민국헌정회장 △채영철 민족중흥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윤세영 SBS명예회장 △이상철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정동기 대한건설협

국회의원 △이광준 춘천시장 △원창복 원주시장 △안계영 강릉부시장 △김영일 춘천시의회장 △김화복 강릉시의장 △조남진 전 강원일보사장 △이영래 전 산림청장 △조재민 전 강원일보 상임고문 △김진모 전 강원랜드 사장 △최준의 전 삼척군수 △민경준 전 조달청기획관리관 △전외구 전 대

△정동기 도건설협회장 △이금선 여성경제인협회장 △고해진 LH강원지역본부장 △조준근 회계사 △최지순 도예총회장 △박종인 새마을회도지회장 △김병호 도미술협회장 △심상만 강원일보 사전동우회장 △김명숙 춘천미술협회장 △전상국 김유정문화총장(소설가) △박은주 도여성단

△유현미 전 민주당 여성국장 △김남희 대한직접자사 도지사 사회협력팀장 △조병국 구지근 백은주 이형재 정지인(이상 화가) △김충기 △김진섭 △김봉기 △김덕기 △김진일 △김남명 △김진기 △김진무 △김진태 △김재경 △김남소 △김진석 △김진택 △김진순 △김승남(이상 강릉김씨 중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사
진 앞줄 가운데)과 연합회 관계자들이 승용차에 문화강원인 스티커를 부
착하고 있다. 원주/백오인

동계올림픽 3대 예산 확보 초읽기

경기장·도로·식수 저수지 예산
국회 문화관광위, 12일부터 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3대 예산이 사실상 내주에 판가름 난다.

8일 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올림픽 경기장 건설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올림픽 식수 전용저수지 조성 예산 등 '올림픽 관련 3대 예산'을 오는 12일부터 심의한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 예산은 정부 안에 580억원이 반영됐지만 오는 2017년 프레올림픽대회 개최 전인 2016년 10월까지 완공을 위해서는 추가로 398억원이 필요하다.

국비 978억원이 전액 반영돼야 내년도 공사를 착공, 2016년까지

올림픽 인프라 시설을 완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경기장 건설비용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장 진입도로 예산 전액 반영도 관철돼야 원활한 대회진행을 할 수 있다.

도는 당초 621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는 402억원만 반영됐다. 219억원이 추가로 반영돼야 개최 전에 간선도로와 올림픽 경기장 간 접근성 확보 등을 할 수 있다.

올림픽 진입도로는 올림픽IC 연결도로를 비롯해 진부역 연결도로, 평창군도 12호선, 지방도 456호선

등 10개 구간이다.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빠진 100억원 확보와 이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올림픽 예산으로 묶어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현안이다.

이 예산을 환경부가 아닌 문화부의 올림픽 예산으로 분류해 일괄 지원해야 도의 열악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대회여건조성 시설로 포함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비지원 비율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가 3~4년간 연 100억원 규모의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사업(광특사업)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와 문화부는 이 사업의 예산 이관을 놓고 이견을 조율 중이다.

문방위 예산소위 위원인 엄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상임위 증액 부분 예산 심의에서 올림픽 3대 예산 증액을 반드시 관철시켜 대회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

보고만 있는 것도 폭력입니다
나를 지키는 변호 117

학교폭력 없는 청정도시! 춘천!

춘천시
 춘천경찰서가 함께합니다

동서고속철 내년도 예산 50억원 일단 반영

국회 국토해양위 의결

불용 위기 예산 집행 문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날 반영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불용 위기에 처한 올해 예산 50억원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의결한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비 50억원을 포함해 도관련 예산 5935억원 등이 반영된 2013년도 상임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국토해양위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 50억원이 예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내년도 예산이 책정돼야 사업추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50억원을 신규로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실시 설계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 반영했지만 최종 확보까지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 도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 예산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심의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올 예산 50억원 집행을 미루고 있어 내년도 예산 반영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 예산 50억원의 연내 집행과 함께 내년도 신규 예산 50억원 확보를 위해 도 정치권과 여·야 중

양정치권의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토위에서 처리된 도 관련 예산은 △국도 38호선(삼척-태백) 1500억원(600억원 증액) △동해고속도로(삼척-고성) 1000억원(239억원 증액) △여주-원주 복선전철 15억원 신규 반영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2000억원(577억원 증액) △동해 이사부 장군 일 선양사업 10억원 신규 반영 등이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스페셜지역 경제자유형 개발사업 83억7000만원(30억원 증액) △지역특화산업 육성 3000억원(745억원 증액) △동해자유무역 관련 예산 106억원 정부안 원안 확정 등이 의결돼 예결위로 넘어갔다.

서울/박지은